

인터뷰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都農 균형의 명품 도시로 조타할 터”

- 행복시 설계자에서 제2기 세종시장으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중점 추진 -

“세종시는 500만 충청인의 꿈과 소망이 담긴 도시이자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상징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가는 도시인 만큼 앞으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도농이 함께 잘사는 균형 잡힌 도시, 그리고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을 시작으로 세종시와 인연을 맺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 부단장,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거쳐 이제는 제2기 시장으로서 세종시의 미래를 그려 나가고 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도시·주택 정책 전문가로서 세종시의 밑그림을 그렸지만, 초대 세종시장 선거에서는 낙선의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그는 ‘토박이 일꾼론’을 외친 현직 시장 후보에 맞서 도시설계 전문가로서 ‘능력 있는 일꾼’임을 설파하여 지역과 학연의 벽을 넘어섰다. 이춘희 시장은 이러한 결과를 “변화를 통해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엄숙한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지난달 21일 조치원 시청사에서 이춘희 시장을 만나 향후 시정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하신 것은 세종시의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도농이 함께 잘사는 균형 잡힌 세종시, 그리고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선거 과정을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년 전, 한 번의 시련을 경험하셨기에 이번에 시장으로 선택받으신 감회가 더욱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하신 것은 세종시의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도농이 함께 잘사는 균형 잡힌 세종시, 그리고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500만 충청인의 꿈과 소망이 담긴 도시이자,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상징이며, 앞으로 실질적 지방 분권 시대를 열어 나갈 선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 아래 국회 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주요 공약을 중점 추진할 것이며, 행복청과 합동 투자 유치단을 구성해 첨단 기업과 대학, 병원 등 자족 기능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 균형 발전을 위해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와 세종시표 로컬푸드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킬 계획입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구현을 위해 일의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정부에 계실 때 세종시의 밑그림을 그렸던 만큼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명품도시로서의 세종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현재의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라는 제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는 서울, 행정은 세종시'로 나눠져

있는 현재 방식을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부터 세종시에 만들어 정치·행정의 분리 상태를 보완해야 합니다. 이 기관들이 세종시로 와야 실질적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추고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방침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법에 정해진 대로 빨리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며, 지방자치 전담 부처인 안전행정부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회 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 중앙 부처 이전 등을 빨리 마무리해야 비효율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신생 도시로서 많은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도시 기반시설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건설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드러난 어려운 점들은 무엇인지요?

세종시 예정 지역은 국가에서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 읍면 지역은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 대책도 없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설 지역과 읍면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원과 북부권은 경제 중심축, 남부권은 행정 중심축의 쌍두마차로 세종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남부권 행정 중심축은 당초 설계했던 밑그림의 원안을 토대로 최근 변화한 현실을 적용시켜 제대로 만들어 나갈 것이며, 북부권은 과학벨트와 연계한 경제 중심축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으로 확보한 7,000억원은 균형 발전에 집중 투자할 생각인데, 신도시와 읍면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조화롭게 하고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읍면 지역에 건립하여 문화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세종시 균형 발전이 가장 큰 현안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를 중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치원을 젊은 도시로 되살리기 위해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세종시는 도시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후의 도시 정책 방향성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종시 균형 발전이 가장 큰 현안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를 중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는 조치원을 인구 10만의 세종시 부도심이자 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해 젊고 활기찬 도시로 되살리자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치원 원도심 7개 권역을 도심재생사업으로, 4개 권역을 신시가지로 조성하는 등 11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2개의 조치원 동서 횡단도로를 만들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계획입니다. 현 시청사 부지에는 15층 규모의 복합 행정타운을 만들어 세종시 제2청사로 활용하는 동시에 정부 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유치할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는데 교통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신도시에 입주하신 세종시민들께서 주차난이나 교통 체증, 기반시설 부족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점에서 행복도시를 설계한 사람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통 문제와 생활 불편 문제는 세종시 백지화 논란 때문에 도시 건설이 3~4년

씩 지연되며 생긴 인재(人災)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신도심 내 교통 체증 문제부터 빨리 해결할 것이며, 신도시 도로 건설 계획을 행복청과 협의해 조금씩 더 앞당기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영 책임은 행복청장이 아닌 세종시장에게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간선급행버스(BRT)와 시내버스의 노선 부족, 배차 시간 문제는 더욱 빨리 해결할 생각입니다. 대중교통 안전 문제를 먼저 살핀 후 배차 시간 단축, 차량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대중교통 완전공영제도 가능성을 참고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설 및 부동산 경기의 부진으로 건설업체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종시에서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법령 허용 최고 수준) 이상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이미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건설공사 발주는 주로 예정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어 우리 시의 추진 사업만으로는 지역 업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복청, LH공사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예정 지역 공사에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건설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건설정보(관내 업체의 인력, 장비, 자재 등)를 전산화해 대한건설협회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에도 활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CERIK

글 : 이형우 편집장